백두산 2

21세기 태양 종자론

주체91(2002)년 4월 30일

종자의 기능

문학예술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은 각기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형상요소들이 작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그 본질과 특성을 인식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형상요소들의 기능은 작품에서 그것들의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의 지위에 놓여 있으며 형상의 원형으로 되고 있는 종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종자의 기능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은 종자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이해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이미 종자의 본질과 특징을 서술한 부분에서 종자의 기능이 대체적으로 언급되였다. 앞에서 서술된 부분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종자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표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자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종자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고 미학실천적 의의가 매우 큰 만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자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종자이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거대한 의의와 생활력에 대한 확증으로 될 것이다.

민족가극 ≪춘향전≫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종자는 생활을 통하여 잡아쥔 사상적 알맹이이므로 처음부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바탕을 가지고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종자의 주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종자는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준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작품이라야 사람들을 진실로 공감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정서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할 수 있다.

혁명가극 ≪피바다≫ 중 한장면

사상성과 예술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푸는 것은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창조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사실주의문학예술과 반사실주의문학예술이 갈라지는 분기점도 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상호관계를 옳게 푸는가 못 푸는가 하는 데 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의 성과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다. 사실주의문학예술의 역사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에서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염원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문학예술작품에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구현하려면 창작실천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의 깊은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한 문제였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이 근본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작품창작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하는 형상

종자론

종자의 기능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다
종자는 창작가를 속도전으로 추동하는 요인이다

작업을 과학적 토대 위에서 줄기차게 벌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하게 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형상작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뚜렷한 목표와 일관된 방향이 없이 그 어떤 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기초로, 바탕으로 되며 작품창작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종자를 똑바로 잡은 기초 위에서만 창작가들이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사업을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향에 따라 확신성있게 벌여 나갈 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기초로, 바탕으로 되며 작품창작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데 종자의 주되는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종자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준다.

그러면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담보해 주는 기본요인이기 때문이다.

종자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해 주는 기본요인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작품에 높은 사상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밀접한 결합은 이 양자의 기계적인 배합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은 다같이 중요하다. 작품의 사상성을 떠나서 예술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예술성과 동떨어진 작품의 사상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도적인 지위에 놓여 있고 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성이다. 사상성에 의하여 예술성이 규정되며 예술성은 사상성에 의존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문제는 사상성을 구현하는 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예술성을 거기에 따라세우는 조건에서만 원만히 실현된다. 이처럼 사상성을 구현하는 것은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 높은 사상성을 구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사상성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에 의하여 규제된다. 작품에서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란 다름아닌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이다. 작품에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높은 사상성을 구현할 수 없다. 종자는 작가가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파악하는 과정에서 잡아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지 못한 종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라고 말할 수 없다. 종자는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종자가 작품의 사상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언제나 생활반영의 문제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미학적 범주로서의 작품의 사상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작품에 형상적으로 반영된 사회정치적 경향성, 형상화된 사상성을 말한다. 작품에 형상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사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품에 구현된 사상성은 생활의 본질을 밝혀내는 형상의 깊이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여 작품의 사상성은 형상적으로 표현된 생활의 본질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사실주의문학예술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기마련이다. 생활의 진리와 본질적 내용이 작품에 형상적으로 구현될 때 그것은 사상성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자는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잡아쥔 사상적 알맹이이다. 종자에는 생활의 본질이 집약적으로 체현되어 있다.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지 않은 종자는 참다운 예술적인 종자로 되지 못한다.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는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에서 생활의 본질적 내용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종자가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작품에 높은 사상성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종자를 똑바로 심어놓아야 한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될 뿐 아니라 예술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된다.

예술성은 문학예술의 본성이다. 이것은 예술성을 떠나서 문학예술작품의 가치와 생명력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술성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작품의 인식교양적 역할과 기능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를 순전히 형식상의 문제로 간주하거나 그 어떤 기교적인 문제로만 고찰하는 편향이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유해롭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에서 예술성은 사상성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게 때문에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는 사상성을 높이는 문제와 통일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상성과 동떨어져서는 작품의 예술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형상수법이나 표현수단들을 재치있게 쓰는 것과 같은 기교적인 문제가 아니며 또한 그것은 창작가가 잔재간이나 부려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은 일정한 사상적 내용을 생생하고 감명깊게 그려낸 형상화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지어진다.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어떻게 그려냈는가 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이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예술성이란 개념과 형상성이란 개념이 흔히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작품의 형상성을 떠나서 예술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형상성이 높은 작품은 예술성도 높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는 형상화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예술적 형상의 창조를 실천적으로 담보해 준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기 때문이다. 작가가 종자를 발견하였다고 할 때 사상적 알맹이가 박혀 있는 생활로부터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관계, 생활범위와 이야기줄거리 등과 같은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암시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무르익은 종자라고 할 수 없다.

종자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고 또한 작가에 의하여 탐구파악된 사상적 알맹이이므로 앞으로 창작될 작품의 기본테두리, 형상적 화폭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생활, 구성, 사건 등 형상의 기본요소들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암시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종자는 작가로 하여금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도록 부추겨 준다.

종자는 또한 창작가로 하여금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녀 낼 수 있게 함으로써 작품의 예술성을 담보해 준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데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떠나서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사실주의작품이 사람들에게 미학적 감화력을 안겨 주며 그들을 새생활 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견인력을 나타내는 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문학예술작품의 생명이며 작품의 예술성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척도의 하나이다. 그런데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생활 속에 있다. 생활을 떠나서 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작품에 그려질 생활에 대하여 윤곽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된다. 만일 종자가 창작가에게 작품에 그려질 생활의 범위와 특성, 양상 등에 대하여 암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종자라고 할 수 없다.

종자는 작가에게 앞으로 그려질 생활을 확정해 주고 그려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생활을 진실하고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게 부추겨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작가는 작품에 생활을 기계적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예술적 의도에 맞게 형상적으로 그려낸다. 종자는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므로 종자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작가는 선택된 생활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인 까닭에 창작실천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실재적인 바탕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되는 것은 종자에만 고유한 기능이다. 문학예술작품의 그 어떤 성분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 노력과 탐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무엇을 기초로, 바탕으로 하여 진행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활동이 진행되어 온것도 사실이다.

지난 시기 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왕왕 발로된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는 사업을 확고한 바탕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것과 많이 관련된다.

종자는 창작가를 속도전으로 추동하는 요인이다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 창작토론회

종자는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한다.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이려면 반드시 종자를 바로쥐어야 하며 작품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 창작에서 종자를 바로잡는 것은 속도전의 선결조건으로 된다.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추동하는 것은 종자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내려면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속도전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창작원천이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속도전이란 창작가가 높은 정치적 자각과 창작적 열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내는 것이다. 속도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혁명적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원칙이며,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창작전투의 기본형식이다. 원래 작품창작이란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작품창작에서 성과의 비결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가의 사상과 열정에 있다.

창작가의 사상이 발동되고 창작적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면 작품창작은 거침없이 진행되며 놀라운 성과가 이룩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깊은 창작적 사색과 불타는 열정, 완강하고 긴장한 창조적 노력은 사상할 수 없는 속도를 낳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비할바없이 높일 수 있게 한다. 창작실천은 ≪구상이 잡히지 않소≫, ≪영감이 떠오르지 않소≫ 하면서 창작에서 한 작품을 창작해 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작품을 빨리 창작하는 것도 좋지만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걸작을 한 편 쓰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고. 이것은 물론 옳은 생각이다.

실제로 인류의 문예사를 더듬어 보면 톨스토이, 발자끄, 셰익스피어, 롤랑, 도스또예프스끼, 챨스 디킨즈 등과 같이 여러 편의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명성을 떨친 작가들도 많지만 일생동안에 불과 1-2편의 걸작을 내놓아 큰 파문을 일으킨 작가들도 있다.

작품을 여러 편 창작하는가, 한두 편을 걸작으로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은 물론 창작가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다. 평범한 작품을 여러 편 창작하는 것보다는 한편이라도 세계적인 걸작을 내놓는 것이 더 유익하고 빛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올망졸망한 여러 개의 야산들을 보는 것보다 웅장하고 높은 하나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가 창작한 여러 편의 작품이 다 걸작으로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기의 온 생애를 걸쳐 한두 편의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경우에도 작품창작 자체는 긴장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훌륭한 작품은 창작가의 정력적인 사색과 불타는 열정,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노력의 산물이다. 심오한 창작적 사색, 불타는 창작적 열정,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 노력은 창작에서 높은 속도를 낳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 작가는 수년 동안 심지어 수십년 동안 작품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작품창작을 시작한 이래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완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작업은 그 어떤 작가의 경우를 막론하고 높은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사회주의하에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의 창작은 당사업의 한 고리이며,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으로써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문학예술이 철저히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하고 싶으면 하고 창작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식으로 창작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학예술의 창작에 종사하는 작가,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민중적인 시책에 의하여 문학예술창작사업이 대중화되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 속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온 사회의 인텔리화가 실현되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수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견지에서 본 인류의 이상사회적 면모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사회적 수요가 끊임없이 높아가는 현실적 조건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한두 편의 작품을 세계적인 걸작으로 만드는 것을 자기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그러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작가나 예술인이 있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현실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람은 시대와 민중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면 종자가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작품창작을 위한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기 때문이다.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 것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사람들의 사상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그 어떤 일도 성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더욱이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은 가장 높은 형태의 정신적인 활동이며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사업이다. 작품창작에서 창작가의 사상의식은 결정적이며 규정적인 역할을 한다. 창작가가 사상정신적으로 적극 발동되지 않고서는 속도전을 벌여 나갈 수 없으며 도대체 창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조국과 민중의 위하여 복무하는 작품을 써야 하며 또 쓰겠다는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각오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작품장작에서 속도전을 벌일 수 없으며 훌륭한 창작적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 주관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훌륭한 창작적 성과를 이룩하려는 각오를 가진 작가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속도전을 벌이기는 고사하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못하는 일이 과연 드문 일이겠는가! 주관적 욕망과 열성만으로는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여나갈 수 없다.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은 기초위에서만 작품을 최단기간 안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창작하려는 확고한 사상적 입장과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창작의 전과정에 이 입장과 자세를 철저히 견지할 수 있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 그것은 창작의 기본고리를 틀어쥐었다는 것을 말하며 작품창작에 대한 신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창작가는 작품을 최단기간 내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창작하려는 확고한 사상적 각오를 가지게 되며

또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게 된다. 이러한 사상정신적 준비를 갖춘 조건에서의 작품창작은 성과를 거두기 마련이며 비록 중도에 이러저러한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창작은 곧바른 길을 따라 줄기차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창작적 구상을 무르익힐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작품은 창작가의 정신적 창조물이다. 구상이 없이는 작품창작이 진행되지 못한다. 작품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창작의 성과가 좌우되는 것이며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무르익히지 않고서는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여 나갈 수 없다.

종자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무르익힐 수 있게끔 창작가를 추동한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해결하려는 기본문제, 사상예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작가의 창작적 구상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과 특징을 파악하

혁명영화 ≪조선의 별≫ 중 한장면

게 될 때 작품창작을 실천적으로 담보하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구상으로 된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떠난 구상은 작품창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종자를 잡아쥔 창작가는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게 되고 작품에서 해결하려는 사상예술적 과제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며 작품의 윤곽까지 그려보게 되기 때문에 작품창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상을 무르익혀 나가게 된다. 이처럼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창작적 구상을 무르익히게 함으로써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하며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게 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그려질 생활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생활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는가 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창작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파악된 생활의 씨앗,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는 작품에 그리게 될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암시해 준다. 종자를 잡아쥔 창작가는 앞으로 자기가 작품에 그려야 할 생활의 범위와 윤곽, 생활의 특성에 대하여 뚜렷한 표상을 가지게 된다.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골라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창작가가 아무리 애를 쓰고 구상을 깊이 하여도 자기가 그려야 할 생활을 확정할 수 없게 되며 생활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창작가가 작품에 그려야 할 생활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창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창작과정이란 바로 다름아닌 생활묘사과정이기 때문이다. 생활묘사를 떠나서는 창작에서 그 어떤 형상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종자는 작가에게 작품에 그려야 할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나아가서 형상적 화폭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주는 것으로 하여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며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한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중 한장면

종자가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창작의 결과를 명백히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종자를 바로잡아야 창작에서 나서는 사상예술적 문제를 옳게 풀어 나갈 수 있으며 창작 그의 결과를 명백히 내다볼 수 있다. 작품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창작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 높은 속도가 나오게 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이 높아지게 된다.

어떤 일에서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내다볼 줄 모르며 결과에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일에서 신명을 낼 수 없으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히말라야봉에 오른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어려운 모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탐험한 것은 이 산을 정복하면 자연계의 새로운 비밀을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문학예술창작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창작의 결과에 대한 파악, 작품을 창작하게 되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이 작품창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가지 못한다.

창작가가 창작의 결과, 형상의 결과를 명확히 내다보게 될 때 창작사업에서 보람과 기쁨,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되고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지혜를 쏟아붓게 되며 놀라운 창작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반면에 창작가가 작품창작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열정과 투지, 인내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자연히 창작속도가 더디게 된다. 창작에서 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창작가가 창작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종자는 창작가에게 창작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안겨 준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창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종자가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다는 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작가가 앞으로 자기가 창작하려고 하는 작품의 사상예술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때 창작의 결과를 명확히 내다보게 되며 따라서 신심과 패기와 열정에 넘쳐 창작사업을 거침없이 벌여 나가게 된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것으로 하여 창작가로 하여금 자기가 창작할 작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표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뜻깊고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은 창작자는 자기가 창작하게 될 작품의 사상예술적 특성을 그려보게 되고 그 작품이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명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며 불타는 창작적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여 창작에서 놀라운 속도를 이룩하게 된다.

종자가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작품창작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제때에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창작조건을 잘 보장하는 것은 속도전을 벌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종합예술창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보장문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절실하게 제기된다. 영화예술이나 무대예술과 같은 종합예술창조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이 사업은 여러가지 복잡한 공정과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또한 종합예술의 창조사업은 여러 가지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이용된다. 조건보장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작품이 빨리 창작될 수도 있고 느리게 창작될 수도 있다.

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는 종자가 똑바로 선정된 기초 위에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종자는 작품창작의 기본방향과 목표, 창작의 과정과 특성 등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종자를 똑바로 파악한 기초 위에서만 작품창작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자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그리고 자기의 고유한 기능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제때에 창작해 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종자를 똑바로 잡는 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중 한장면

혁명가극 ≪피바다≫ 중 한장면

혁명연극 ≪소원≫의 한장면

민속무용조곡 ≪평양사람들≫